

研究論文

高麗時代の逸失詩話・詩評集考察*
- 『雜書』, 『續破閑集』, 『東國文鑑』을 중심으로 -

金乾坤**

I. 緒言	IV. 詩文選 兼 詩話・詩評集 『東國文鑑』
II. 高麗 最初の 詩話・詩評集 『雜書』	V. 『白雲小說』의 撰者에 대한 異見
III. 『續破閑集』과 『補閑集』의 關係	VI. 結言

I. 緒言

고려시대의 시평·시화에 대한 연구 내지 한문학 비평연구는 『破閑集』, 『補閑集』, 『櫟翁稗說』, 『白雲小說』을1)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성과도 상당히 축적되었다. 이들 雜錄의 각각에 나타나는 비평관, 비평의 기준·형태·방법 등 비평정신과 전개양상이 여러 차례 검토되었으며2), 특히 『백운소설』의 편자가 李奎報가 아니라 조선 후기의 어떤 문인일 것이라는 원전 비평적 연구는 주목되는 성과이다.3) 또 조동일의 『한국문학사상사시론』에 이어, 『한국문학사상사』4)가 관련 전공자들

* 이 논문은 1991년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과제 「羅麗 詩話・詩評研究」를 일부 개고한 것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한국한문학 전공.

1) 『백운소설』을 뒤에 놓은 것은 그 내용이 이규보와 관련된 것이지만, 조선 후기에 편찬되었기 때문이다.

2) 고려시대 비평연구의 최대 쟁점은 用事와 新意에 대한 이해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유재영, 『白雲小說研究』(원광대 출판국, 1979); 김진영, 「李奎報文學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1982); 정규복, 「백운소설의 찬자에 대하여」, 『한국고전문학의 원전비평』(새문사 1990).

에 의해 분담 집필됨으로써 고려시대 주요 문인들의 문학사상 및 비평세계가 일차 정리된 셈이 되었다.

이와 같이 근년에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연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에도, 본고에서 고려시대의 시화·시평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해당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가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기존 연구에서는 현전하는 4종의 자료집(『파한집』, 『보한집』, 『역옹패설』, 『백운소설』)을 중심으로 다루어 왔고, 여타 전하지 않는 이 시대의 시화·시평집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그 성격을 제대로 구명하지 못한 면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려시대에 편찬된 시화·시평집의 實態, 種數, 先後關係조차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다고 하겠다.

이상의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는 고려시대 시화·시평집의 편찬 실태에 대한 정보를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

우리 東方의 詩學은 三國에서 시작되어 高麗에서 성했으며 朝鮮에 와서 極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시를 품평한 것으로는 中丞 鄭嗣文, 大諫 李眉叟, 文正 金台鉉, 平章 崔樹德, 益齋 李仲思 같은 사람이 모두 부지런히 수집하였으나, 소략하고 자잘한 병통이 없지 않다.⁵⁾

조선 초기의 문인 崔淑精(1433~1480, 세종 15~ 성종 11) 이 徐居正의 『東人詩話』의 우수성을 치켜세우기 위하여, 앞 시대의 시화·시평집 편찬자들을 열거하고 그 자료집의 단점을 지적한 내용이다. 嗣文은 鄭敍의 초명 眉叟는 李仁老의 字이고, 文正은 金台鉉의 시호, 樹德은 崔滋의 字, 仲思는 李齊賢의 字이다. 이들이 각각 편찬한 시화·시평집은 『雜書』, 『破閑集』, 『東國文鑑』, 『補閑集』, 『櫟翁稗說』이다. 곧 고려시대에는 이상 5종의 시화·시평집이 편찬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鄭敍의 『雜書』와 金台鉉의 『東國文鑑』이다. 이에 따르면 정서의 『잡서』는 시기적으로 우리나라 最古 最初의 시화·시

4) 『한국문학사상사 - 송민호 교수 고회기념논총』(계명문화사 1991).

5) 崔淑精, 「東人詩話後序」: “吾東方詩學 始於三國 盛於高麗 極於聖朝 其間斧藻裁品者 若鄭中丞嗣文 · 李大諫眉叟 · 金文正台鉉 · 崔平章樹德 · 李益齋仲思 皆有裒集之勤 然不無疎略瑣瑣之病”

평집에 해당하고, 김태현의 『동국문감』은 그 동안 詩文選集으로만 알려져 왔지만 시화·시평적 성격을 겸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를 중심으로 고려시대에 편찬된 몇몇 시화·시평집의 편찬과정과 태도 그리고 그 성격을 고찰하고, 아울러 『백운소설』의 편찬자를 洪萬宗으로 추정한 점⁶⁾에 대한 異見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高麗 最初의 詩話·詩評集 『雜書』

우리 선인들이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한자를 들여와 한문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한 이래 문학작품에 대한 단편적인 품평이 있어 왔지만, 본격적인 시화·시평집 형태의 저술이 편찬되기는 고려시대에 와서였다. 지금까지 고려시대에 편찬된 최초의 시화집은 李仁老의 『破閑集』으로 알려져 왔고, 각종 문학사는 물론 기존의 개별연구에서도 그렇게 기술되고 있다. 이는 현전하는 最古의 시화집이 『과한집』인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서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 이전에 鄭敳가 저술한 시화·시평집이 있었음은⁷⁾ 고려 비평사의 기원을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서의 시화·시평집이 현전하지 않아 그 전모를 알 수가 없지만, 崔滋의 『補閑集』에 전하는 다음 기사로 미루어 그 성격의 대강을 헤아릴 수가 있다.

中丞 鄭敳의 『雜書』에 侍中 崔惟善의 「閨情詩」가 실려 있는데, 이르길 “피고리는 새벽에 울고 시름 속에 비 내리는데, 푸른 버들 맑은 날에 中春을 바라보네”라 하였고, 또 「梳詩」에 이르기를 “들어가 등용되어서 마땅히 머리에 꽃을 일이지, 어찌 일찍이 匣 속에 있겠는가?”라 하였다. (이 시구를 보면 최유선은) 단지 재주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위가 신하로서 가장 높게 될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지금 『侍中集』을 보면 ‘머리에 꽃는다[加首]는 글귀가 자못 많은데, 鄭中丞은 어찌 이 一聯을 취하여 그의 지위가 신하로서 가장 높게 될 것을 알았을까?⁸⁾

6) 정규복, 앞의 논문

7) 이가원, 『한국한문학사』(보성문화사, 1978)에서만 고려시대의 雜錄으로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정서가 그의 『잡서』에 崔惟善의 「閨情詩」와 「梳詩」를 뽑아 넣었는데, 특히 「梳詩」의 詩句(들어가 등용되어서 마땅히 머리에 꽃을 일이지 어찌 일찍이 갑 속에 있겠는가?) 대로 최유선이 후일에 현달하였으므로 정서의 시 감식안이 뛰어나다는 칭찬이다. 「梳詩」에서 비녀를 머리에 꽂는다는 것은 紗帽를 쓰고 벼슬에 나아가는 일을 가리키며, 갑 속에 있는 것은 布衣의 신세라고 할 수가 있다. 『崔侍中集』에 ‘加首 라는 글귀가 많이 쓰인 것은 그 만큼 宦路로의 진출 의지가 강했음을 나타내는 것인 바, 정서는 이를 포착하여 최유선의 지위가 人臣의 極이 될 줄을 예견했던 것이다.

실제 최유선은 현종 때 「君猶舟」라는 賦와 「御苑種仙桃」라는 詩로 廉前試에 장원급제하여⁹⁾ 7품관으로 한림원에 들어갔으며, 문종 때 여러 벼슬을 거쳐 同知中樞院事가 되었고, 그 후 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權吏部尙書事, 中書令, 判尙書吏部事에 올랐으며, 推忠贊化康靖綏濟功臣號를 받고 開府儀同三司守太師上柱國 門下侍郎에 이르렀다. 그는 해동공자 崔沖의 아들로, 아버지를 이어 당대의 儒宗이 되었으며 사람들이 모두 그를 존경하였다고 한다. 文和라는 시호를 받고 文宗의 묘정에 배향되었다.¹⁰⁾

한편 鄭紱는 忠臣戀主之詞로 일컬어지는 「鄭瓜亭」의 작자이다. 그는 恭叡太后的 媵婦로서 仁宗의 총애를 받았으며, 특히 종실 大寧侯와 친함으로써 鄭誠·金存中 등의 모함을 받아 동래로 유배되었는데, 오래 되어도 임금이 불러주지 않자 거문고를 타며 「정과정」을 지었다.¹¹⁾ 이 「정과정」은 李齊賢(1287~1367)이 「東國四詠」의 하나로 읊고 또 「小樂府」에 올린 이래, 고려와 조선시대의 많은 문인들이 이를 따라 짓는 인기 있는 詩題가 되기도 하였다.¹²⁾

『고려사』, 「열전」에 의하면, 그는 성품이 輕薄했으나¹³⁾ 才藝가 있었다고 한

8) 崔滋, 『補閑集』 卷上: “鄭中丞紱雜書 載崔侍中惟善閨情詩云 黃鳥曉啼愁裏雨 綠楊晴弄望中春 又梳詩云 入用宜加首 何曾在匣中 非特才華贍給 足以知位極人臣也 今觀侍中集中 如加首之句頗多 鄭何取此一聯 知位極人臣也”

9) 같은 곳.

10) 『高麗史』 卷95, 「崔沖列傳 附 崔惟善」.

11) 같은 책, 卷97, 「鄭沆列傳 附 鄭紱」.

12) 정경주, 「정서의 생애와 충신연주지사로서의 정과정」, 『부산한문학연구』 8, 부산한문학회(1994)와 성범중, 「동국사영의 연원과 전통」, 『한국한시연구』 4, 한국한시학회(1996)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13) 성품이 경박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정경주 교수가 위 논문에서 반론을 제기하여 충분히 해명하

다. 14) 才藝가 있었다는 이 단평만으로 그가 시화·시평집을 편찬할 만한 作詩力과 鑑識眼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그의 문학적 소양 내지는 비평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竹高七賢의 한 사람인 林椿이 정서를 추모한 시에서 그 단서를 확인할 수가 있다.

忽昨見遺墨	홀연히 남긴 유묵 다시 뵈오니
之人猶目擊	그 분을 직접 만나 뵈운 것 같네.
神毫鬪蛟螭	신묘한 글씨는 교룡이 싸우는 듯
大手搏狸獬	큰 솜씨로 이리를 때려 잡았네.
翻瀾一快讀	뒤적이며 한 번 쾌히 읽은 뒤로
嗜闕空成癖	즐거 보기가 팬스레 버릇 되었네.
還疑照乘珠	도리어 수레 비출 보배인가 ¹⁵⁾ 의아하고
初從領下索	처음으로 턱 아래 여의주를 ¹⁶⁾ 찾은 듯하네.
觀者已爭購	보는 이가 벌써 다투어 사들이매
流傳逼蠻貊	오랑캐 땅까지 흘러 전하였네. ¹⁷⁾

이 시는 원래 102句에 이르는 장편시로, 정서가 동래로 유배될 때 中淳禪老에게 화답한 시를 임춘이 얻어 보고 차운한 것이다. 임춘은 정서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는데¹⁸⁾ 그의 유고만을 읽고는 神毫·大手라 재주를 칭찬하고 詩作을 照乘珠·領下珠에 비겼다. 더욱이 정서의 유고를 闕讀하는 것이 임춘에게 버릇이 되었고, 또 사람들이 그의 유고를 다투어 購得하였다고 한다. 임춘은 또 다른 시에서 당시 사람들이 정서의 시를 보배로 여겼다고 하였다.¹⁹⁾ 곧 정서는 詩的 才能이 뛰어난 인물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단적으로는 和韻詩이기는 하지

었다.

14) 『고려사』, 같은 곳 : “性輕薄 有才藝

15) 전국시대 魏惠王이 지녔던 구슬로 한 개가 12乘의 수레를 환하게 비추었다(『史記』, 「田敬仲完世家」).

16) 검은 용의 턱 아래에 있다는 珠玉으로 귀중한 보배를 가리킨다. 領下之珠(『莊子』, 「列禦寇」).

17) 林椿, 『西河集』 卷1, 「次韻鄭侍郎敘詩并序」.

18) 같은 곳 : “故學士鄭公 余不及見之 有藏其遺稿者 乃公貶南時 所和中淳禪老詩也 追和其韻

19) 같은 책, 卷2, 「追悼鄭學士」 : “當年翰墨爲人寶 高世聲名造物猜”

만 102句의 장편시를 구사한 것에서도 그의 作詩 능력을 엿볼 수가 있다

閑棲多暇日	한가로이 사노라니 여가가 많아
章句搜且摘	章句를 찾고 또 뽑았네.
感憤寓諸文	감분한 심정을 글에다 붙이니
紛紛盈簡策	어지러이 종이마다 가득하네. ²⁰⁾

이 시구는 정서가 『잡서』를 편찬한 사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閑棲多暇日’은 동래로 유배가 있을 때를 말하고, ‘章句搜且摘’은 선인들의 詩文을 抄選하는 일을 나타낸다. 그리고 ‘感憤寓諸文’은 그 抄選한 詩文에 대해 느낌과 품평을 부치는 것이며, ‘紛紛盈簡策’의 결과는 『雜書』인 것이다. 곧 정서가 20년 간의 유배생활을²¹⁾ 하는 중에 선대의 시문을 수집하고 발췌하는 한편, 거기에 비평을 가하여 『잡서』를 편찬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서는 상당한 作詩力과 鑑識眼의 소유자였고, 『잡서』는 고려시대에 편찬된 최초의 시화·시평집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문인들 사이에 소장, 애독되는 한편 후대의 시화집 편찬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崔滋는 『續破閑集』을²²⁾ 편찬하고, 그 序文에서 『잡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또 중서 李藏用의 집에 소장되어 있던 중승 鄭紱의 『雜書』 3권을 얻어서 아울러 후편에 붙여 通儒의 刪補를 기다리는 바이다.²³⁾

李藏用은 정서보다 후진으로, 최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다. 『잡서』가 그의 집에 소장되어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그가 애독하였고, 나아가 당시의 문인들 사

20) 같은 책, 卷1, 「次韻鄭侍郎紱詩并序」.

21) 정서는 의종 때 內侍郎中으로 있다가 동래로 유배되었고, 20년 간의 유배 끝에 명종 즉위 직후에 소환되었다.

22) 『속과한집』과 『보한집』은 체재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23) 『東文選』 卷84, 崔滋, 「續破閑集序」: “又得李中書藏用家藏鄭中丞紱所撰雜書三卷 并附于後編 以俟通儒刪補” 이 내용은 「補閑集序」에 없는 것이다

이에 널리 읽혔음을 말해준다. 최자가 『잡서』를 『속파한집』에 부록으로 붙인 것은 『잡서』가 『속파한집』(『보한집』)과 같은 성격의 저술이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잡서』가 시화·시평집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公刊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3권이라고 했으니 『파한집』, 『보한집』의 분량에²⁴⁾ 해당하는 전문 시화·시평집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 또 적어도 조선 초기까지는 전해졌던 것으로 보이²⁵⁾ 고려는 물론 조선시대의 시화집 편찬에 많은 참고가 되고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⁶⁾ 따라서 鄭敎는 고려가요 「鄭瓜亭」의 작자로서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화·시평집의 端初를 열었다는 점에서 새로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III. 『續破閑集』과 『補閑集』의 關係

鄭敎의 『雜書』에 이어서 나온 것이 李仁老의 『破閑集』이다. 『破閑集』에는 전래의 奇聞, 異事, 文士들의 逸話, 人物評, 詩話, 이인로 자신의 간단한 詩文評, 詩文論 등이 일정한 체제없이 서술되어 있다. 이인로의 아들 世黃은 아버지의 평소 말을 인용하여 『파한집』의 저술의도가 다음과 같음을 밝히고 있다.

날마다 西河 耆之와 濮陽 世材의 무리와 더불어 金蘭의 사귀를 맺고 꽃피는 아침이나 달 밝은 저녁이면 같이 놀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세상에서는 竹林高會라 했다. 술이 취하면 서로 말하기를“ …… 우리 本朝는 邊境이 蓬萊·瀛洲와 접해 있어 옛날부터 神仙의 나라라 하였다. 그 靈異한 것을 모으고 빼어난 것을 길러서 500년마다 간간이 인재를 내어 중국에 아름다운 이름을 나타낸 이로는 學士 崔孤雲이 앞에서 先唱하였고 參政 朴寅亮이 뒤에서 화답하여 名儒와 韻僧이 題詠에 공교하여 名聲을 異域에 떨친 이가 대대로 있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진실로 거두어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지 않는다면 없어져서

24) 『파한집』과 『보한집』은 각각 上·中·下 3卷으로 이루어져 있다

25) 최숙정, 앞의 글

26) 金佺의 『海東文獻總錄』에도 『雜書』 書目이 있으나 직접 관련되는 내용은 없고, 「정과정곡」에 대한 언급만 있다. 곧 김휴는 『잡서』를 직접 보지 못한 것 같으며, 조선 초기에 일실된 것으로 보인다.

전하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하고, 드디어 中外의 題詠 중에서 본받을 만한 것을 거두어서 엮어 정리하여 3권을 만들고 이름을 破閑이라 했다²⁷⁾

당시는 文士들이 무신난을 피해 竹林高會를 결성하고 飲酒賦詩로 소일하던 때 였던 바, 시대적 상황이 문사들로 하여금 문학에 탐닉하게 했고 또 그 과정에서 『파한집』의 편찬이 가능했던 것이다. 『파한집』 편찬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인멸 우려가 있는 名儒韻釋의 빼어난 題詠들을 收拾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 문인들의 우리 문화 보존의식과 문사로서의 책임의식을 엿볼 수가 있다. 또한 최치원, 박인량 및 명유운석들이 제영으로 중국에 명성을 날렸다는 데 대한 문화적 자긍심과 저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대등의식도 아울러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파한집』은 책 제목만 보고서 얼핏 생각해버리기 쉬운 ‘심심 파적으로 쓴 글’이 결코 아니다. 개인적인 파한으로서가 아니라, 분명한 저술의도를 가지고 편찬한 것이다. 이인로는 致仕하거나 은둔한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되면 온전한 閑을 깨달을 수 있고, 벼슬길에 헤매다가 실세한 사람들도 이 책을 읽게 되면 한가한 것이 병통이 되는 불완전한 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에서 책의 제목에 ‘閑字를 넣었다고 하였다²⁸⁾ 이는 자기의 파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파한을 위해서 저술했다는 2차적인 집필 의도라고 할 수가 있다. 즉 직접적인 저술 의도는 역대 名儒韻釋들의 題詠을 수습하여 후세에 전하는 데 있었지만, 부차적으로는 독자에게 파적거리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책의 제목 또한 부차적인 목적과 관련하여 붙여진 것이라고 하겠다.

『파한집』의 뒤를 이어서 崔滋의 『續破閑集』, 즉 『補閑集』이 나왔다 책의 제목에서 그 후속임을 당장 알 수가 있지만, 그 구체적인 편찬경위는 다음과 같다

-
- 27) 李世黃, 「破閑集跋」: “日與西河耆之 濶陽世材輩 約爲金蘭 花朝月夕 未嘗不同 世號竹林高會 倚酣相語曰……我本朝境接蓬瀛 自古號爲神仙之國 其鍾靈毓秀 間生五百 現美於中國者 崔學士孤雲唱之於前 朴參政寅亮和之於後 而名儒韻釋 工於題詠 聲馳異域者 代有之矣 如吾輩等 苟不收錄傳於後世 則堙沒不傳 決無疑矣 遂收拾中外題詠可以法者 編而次之爲三卷 名之曰破閑”
- 28) 같은 곳: “吾所謂閑者 蓋功名名遂 懸車綠野 心無外慕者 又遁跡山林 飢食困眠者 然後其閑可得而全矣 然寓目於此 則閑之全可得而破也 若夫汨塵勞役名宦 附炎借熱 東驚西馳者, 一朝有失 則外貌似閑 而中心洶洶 此亦閑爲病者也 然寓目於此 則閑之病亦可得而醫也 若然則不猶愈於博奕之賢乎”

고금의 여러 명현 중에 그 문집을 엮어 놓은 사람은 오직 칠팔 명에 그치고, 그 나머지의 名章秀句는 모두 인멸되어 전하지 않는다. 학사 李仁老가 대략 모아서 책을 엮어 『파한집』이라고 했으나 晉陽公이 그 책의 수록 범위가 넓지 않다고 하여 나에게 續補를 명하였다. 이에 없어져 잃어버린 나머지를 역지로 주워 모아 근체시 약간 聯을 얻고, 혹 중이나 아녀자들의 한두 가지 일 중에서 웃음거리의 자료가 되는 것은 비록 그 시가 좋지 않더라도 같이 수록하여 함께 一部를 만들어 三卷으로 나누고 이름을 『속파한집』이라 하였다.²⁹⁾

『보한집』의 저술목적은 1차적으로 『파한집』의 수록 범위가 넓지 않아 그것을 보완하여 독자에게 파한의 資料로 제공하는 데 있었다. 거기에는 최자 자신의 생각이든 지시자 晉陽公 崔怡의 생각이든 간에, 이인로와 마찬가지로 인멸 우려가 있는 名章秀句를 수습하여 후대에까지 전하려는 우리 문화에 대한 보존의식이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실권자 최이의 續補 지시는 당시의 정략적인 문인·문학 우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최자는 『보한집』을 저술하면서 앞서 이루어진 정서의 『잡서』와 이인로의 『파한집』을 기본적으로 참조했지만, 특히 『파한집』의 續補를 내세우고도 이인로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빼고³⁰⁾ 또 이인로보다도 이규보에 치우치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인로와 이규보의 대비를 통하여 이규보에게 편파적일 만큼 칭찬을 하고 있다. 『보한집』이 이인로의 『파한집』의 續補임을 자처했으나, 그 형식만 따랐을 뿐이고 실제 비평에서는 이규보의 시론과 시를 추종하고 있다. 이규보를 新意論者로 만든 것도 그이다. 이는 이인로와의 문학관의 차이도 있지만, 그의 출세가 이규보의 후광을 크게 입은 것과도³¹⁾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속파한집』과 『보한집』은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그래

29) 『東文選』 卷84, 崔滋, 「續破閑集序」: “古今諸名賢 編成文集者 唯止七八家 自餘名章秀句 皆埋沒無聞 李學士仁老略集成編 命曰 破閑 今晉陽公以其書未廣 命予續補 強拾廢忘之餘 得近體詩若干聯 或至於浮屠兒女輩 有一二事可以資於談笑者 雖詩不佳 并錄之 共成一部 分爲三卷 名之曰續破閑.”

30) 崔滋, 『補閑集』 卷下: “眉叟以林宗庇崑崙崗上之對 載於破閑 吾不取焉”

31) 『高麗史』 卷102, 列傳15, 「崔滋列傳」: 이규보가 최자의 글을 기이하게 여기던 중 최이가 이규보에게 “누가 당신의 후임으로 文翰을 담당할 만한가?”라고 묻자, 대답하기를 “학유 직에 있는 崔安(崔滋)이란 사람이 있고, 과거에 급제한 金坵가 그 다음이다”라고 하였다. 또 이규보가 당시의 신진 문사들을 表와 書로써 10차례 시험하였는데 최자를 5차례 장원, 5차례 차석으로 평정하였다

왔듯이 『속과한집』을 『보한집』과 같은 책으로 인식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잘못이다. 이는 「속과한집서」와 「보한집서」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 다음 표는 두 서문 간의 글자 출입을 대비한 것이다.

번호	「續破閑集序」	「補閑集序」
1)	琢字必欲新 故語生	琢字必欲新 故其語生
2)	吾道大興	吾道大行
3)	權迪	權適
4)	金富侑富輒	金富輒富侑
5)	朴皓	朴浩
6)	今時李學士仁老	李學士仁老
7)	俞文安公升旦	俞文公升旦
8)	金內翰克己	金翰林克己
9)	劉李兩司成	劉冲基李百順兩司成
10)	皆金石間作	金石間作
11)	古今諸名賢 編成文集者 唯止七八家	古今諸名賢 編成文集者 唯止數十家
12)	今晉陽公 以其書未広 命予續補	晉陽公 以其書未広 命予續補
13)	得近體詩若干聯	得近體若干聯
14)	雖詩不佳	其詩雖不嘉
15)	共成一部 分爲三卷 名之曰 續破閑	共一部 分爲三卷 而未暇雕板
16)	又得李中書藏用家藏 鄭中丞敍所撰雜書三卷 并附于後編 以俟通儒刪補	今侍中上柱國崔公 追述先志 訪採其書 謹繕寫而進
17)		時甲寅四月日 守太尉 崔滋序
출 전	『東文選』 卷84	『補閑集』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한집서」는 「속과한집서」를 고쳐 쓴 것이다. 우선 문장을 윤문하고, 인명·직명이 잘못 표기되거나 불분명한 것을 바로잡았으며,³²⁾ 시대상황에 맞게 부분적으로 개작했음을³³⁾ 볼 수가 있다. 특히 여기서 우리는 두 서문을 각기 쓸 당시의 상황과 최자의 입장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속과한집서」는 최자가 진양공崔怡의 지시로 책의 편찬을 끝내고 썼던 바, 그 시점은 위의 표-12) 今晉陽公 때이다. 「보한집서」는 그 책(『속과한집』)이 제때에 간행되지 못하고 있던 중, 최이의 아들崔沆이 아버지의 뜻을 追述하기 위하여 책을 찾으므로

32) 위의 표 「보한집서」-7)번의 경우 오히려 ‘安’字를 빼는 잘못을 저질렀다.

33) 위의 표-2), 6), 11), 12), 15), 16)번에 개작의 양상이 잘 나타나 있다

繕寫하여 바치며 썼던 바, 그 시점은 위의 표-16) 今侍中上柱國崔公 때이다. 그런데 繕寫 과정에서 『속파한집』에 변화가 일어났다. 즉 책의 제목이 『속파한집』에서 『보한집』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파한’이라는 용어를 없앴으로써 『파한집』의 편찬자인 李仁老와의 연관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보다 중요한 변화는 책의 체제가 부분적으로 바뀐 점이다. 표-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파한집』의 부록으로 첨부된 鄭敍의 『雜書』 三卷이 繕寫 과정에서 『보한집』에 부분적으로 편입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보한집』의 다음 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

鄭中丞敍雜書 載崔侍中惟善閨情詩云……鄭何取此一聯 知位極人臣也³⁴⁾

『속파한집』의 부록으로서 별도의 책인 『잡서』의 내용이 『보한집』에 나오는 것은 최자가 繕寫過程에서 『잡서』를 인용하고,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기 때문이다. 위 인용문의 “鄭何取此一聯 知位極人臣也”는 최자의 정서에 대한 평가이다. 결국 「속파한집서」에서 정서의 『잡서』 3권을 『속파한집』에 附編하여 通儒의 刪補를 기다린다고 하였는데, 『보한집』으로 繕寫하면서 자신이 通儒가 되어 『잡서』를 刪補한 셈이 된 것이다.

따라서 『속파한집』은 『보한집』의 초고이고, 『보한집』은 『속파한집』의 수정 증보판이라고 할 수가 있다. 두 책은 『잡서』의 편입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하겠다. 한편 『보한집』은 1254년(고종 41)에 간행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속파한집』도 조선 초기까지는 전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의 「최자열전」에 “『家集』 10 권과 『續破閑集』 3권이 세상에 전한다”고 하였다.³⁵⁾

IV. 詩文選 兼 詩話·詩評集 『東國文鑑』

『東國文鑑』은 우리나라의 시문을 대상으로 편찬된 최초의 詩文選集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과 규모 등을 자세히 알 길이

34) 崔滋, 『補閑集』 卷上: 全文은 註 8)번 참조

35) 『고려사』 권102, 열전15, 「崔滋列傳」: “家集十卷 續破閑集三卷 行於世”

없다. 본 장에서는 金台鉉 및 『東國文鑑』과 관련 있는 단편적인 문헌기록들을 수습하여 그 성격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찬자인 金台鉉(1261~1330, 원종 2~충숙왕 17)은 자는 不器, 호는 快軒, 본관은 光山이고, 시호는 文正이다. 그는 10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학업에 근면하여 15세(충렬왕 1)에 監試에 1등으로 합격하고 이듬해에 文科에 급제하여 左右衛參軍 知文翰署를 시작으로 版圖摠郎, 右承旨, 密直副使, 征東行中書省左右司郎中, 知都僉議司事, 判三司事, 評理, 權征東行省事 등을 역임하고 中贊으로 치사하였다

그에게는 두 가지 유명한 일화가 전하고 있다. 하나는 그의 굳은 心志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忠義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그는 외모가 단정하고 眉目이 그런 듯하였으며, 어려서 동무들과 선배의 집에 나아가 공부를 할 때 선배가 특별히 사랑하여 자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였다. 그 집에 새로 과부가 된 딸이 제법 시를 지을 줄 알아 “저 말 탄 이 누구 집 도련님인가, 석 달 동안 누구인지 이름도 몰랐어라. 이제야 알았노니 김태현인 줄을, 가는 눈 긴 눈썹이 은근히 맘에 들어”(馬上誰家白面生 邇來三月不知名 如今始識金台鉉 細眼長眉暗入情)라는 시로 유혹을 하자 이후로 김태현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또 1302년(42세) 밀직부사로 聖節使가 되어 원나라에 갔을 때 元帝가 甘肅省에 있으면서 모든 進貢使를 연경에서 기다리라고 한 데 대해, 김태현은 元帝의 명령을 어길지언정 行在所에 가는 것은 우리 임금의 명이니 어길 수 없다고 하고 그곳에까지 가서 元帝를 배알하자 원제가 그의 충성심을 크게 치하하고 많은 상과 음식을 주어 우대하였다고 한다. 일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성질이 청렴하고 언어와 행동이 예절에 맞았으며, 남들과 화목하고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였고 자손을 가르치는 데 일정한 규범이 있었으며, 사람들과 교제를 함부로 하지 않았고 남의 원망을 사는 일이 없었다.³⁶⁾ 한편 그의 著述은 詞敎가 體를 얻고 詩가 淸艷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³⁷⁾

그러면 김태현은 『동국문감』을 어떤 목적에서 편찬하였으며, 또 어떤 글을 얼마나 뽑았을까?

36) 같은 책, 권110, 열전23, 「金台鉉列傳」.

37) 崔濠, 『拙叢千百』 卷1, 「金文正公墓誌」: “其所著述詞敎得體 詩淸艷 可愛

- 1) 또 손수 東人의 글을 수집하여 『東國文鑑』이라 하고 『文選』과 『唐文粹』에 견주었다.³⁸⁾
- 2) 일찍이 국초 이래의 문장을 모아 『海東文鑑』이라 이름 하였는데 세상에 유행한다.³⁹⁾
- 3) 일찍이 손수 東人의 詩文을 모아 『東國文鑑』이라 하였다.⁴⁰⁾
- 4) 김태현이 『文鑑』을 편찬하였으나 疎略하여 실패하였습니다.⁴¹⁾
- 5) 태현이 『國鑑』을 편찬하였으나 疎略하여 실패하였습니다.⁴²⁾
- 6) 전에 빌려 온 『國鑑』을 삼가 포장하여 보내드렸는데 받으셨는지요?⁴³⁾

위의 기록에 의하면 『동국문감』은 『해동문감』으로도 불리고, 줄여서 『文鑑』·『國鑑』으로 일컬어졌으며, 조선 초기에는 이미 문인들 사이에 서로 빌려 볼 정도로 세상에 유전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기록 자체만을 두고 볼 때 그 대상이 崔瀞가 쓴 「묘지」에는 東人之文, 李穡과 權近의 기록에는 國初以來文章, 『고려사』에는 東人詩文 등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 좀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文만을 대상으로 했는가, 아니면 詩까지도 포함시켰는가, 고려시대의 것만 인가, 삼국시대까지 올라가는가 등이 문제이다. 詩의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첫 인용문의 文(文章)은 散文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韻文과 散文을 通稱하는 廣義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이는 김태현 스스로 『동국문감』을 『문선』과 『당문수』에 견주었던 바, 거기에 시까지 채록되어 있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가 있다. 시대상의 문제는 ‘東人’이라 하면 당연히 삼국까지를 포함하지만 ‘國初以來’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 檀君의 개국 이래로 볼 것인가, 고려의 건국 이래로 한정할 것인가? 이 역시 책 제목이 『동국문감』이고, 또 뒤이어 편찬된 최해의 『동인지문』의 예로⁴⁴⁾ 미루어 최치원·박인범·최승우·최광유 등 신라시대의 문인들까지 그 대

38) 같은 곳 : “又手集東人之文 號東國文鑑 以擬配選粹

39) 李穡, 『牧隱文集』 卷17, 「松堂先生金公墓誌并序」 및 權近, 『陽村集』 卷35, 東賢事略, 「政丞金台鉉」 : “嘗集國初以來文章 目曰海東文鑑 行于世”

40) 『高麗史』 앞의 곳 : “嘗手集東人詩文 號東國文鑑”

41) 徐居正, 「東文選序」 : “金台鉉作文鑑 失之疎略”

42) 盧思愼 等, 「進東文選箋」 : “台鉉編國鑑 而失之疎略”

43) 梁誠之, 『訥齋集』 卷5, 「答戚人書」 : “前借來國鑑 謹表呈 領之如何”

44) 최해의 『동인지문』은 최치원으로부터 고려 충렬왕 때까지의 시문을 뽑은 것이다.

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편자 자신이 『문선』과 『당문수』에 비긴 것으로 미루어, 『동국문감』에는 이들 시문선집에 준하는 각 문체들이⁴⁵⁾ 두루 채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李穡이 『동국문감』의 哀集이 富贍하다고 평한 것에서도⁴⁶⁾ 짐작할 수가 있다. 당시 고려의 경우 科擧制와 관련하여 近體詩가 성행하고 駢儷文이 풍미했던 점과 삼국 이래 고려에서는 문인 학자들 사이에 『문선』이 애독되었던 점을⁴⁷⁾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김태현이 『동국문감』을 편찬한 목적과 과정은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앞서 중국에서 편찬되었던 『文選』, 『文苑英華』, 『唐文粹』, 『宋文鑑』 등의 영향과 당시까지 고려에는 우리의 시문을 대상으로 한 1종의 시문선집도 편찬되지 않았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동국문감』의 편찬을 통하여 안으로는 우리 문학의 정수를 정리하고 밖으로는 중국의 것에 견주겠다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송문감』을 의식하여 책 제목을 『동국문감』이라고 한 것이나 스스로 『문선』과 『당문수』에 擬配한 점에서 그러한 사정을 유추할 수가 있다. 당시 문인들의 對中國 文化意識은 그의 제자인 崔滄가 類書를 편찬하여 중국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중국과 대등한 높은 수준의 문학이 있음을 알리고자 『東人之文』을 편찬한 의도에도⁴⁸⁾ 잘 드러난다.

『東國文鑑』의 편찬 시기는 김태현의 宦歷으로 보아 충선왕 3년(1311)~충숙왕 8년(1321) 사이로 추정된다. 이때 그는 商議贊成事를 사직하고 10년 동안 閑居하였던 바,⁴⁹⁾ 전대의 시문들을 섭렵하는 등 선집을 편찬할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국문감』은 당초 몇 권으로 편찬되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慵齋叢話』에 幾十卷이라 한⁵⁰⁾ 것으로 보아 그 권질이 꽤 많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동국문감』에 대한 후인들의 평가 특히 조선 초기의 選文家

45) 『文選』에는 詩, 騷, 賦, 七, 詔, 冊, 令, 教, 策文, 表, 上書, 啓, 彈事, 牋, 奏記, 書, 移, 檄, 對問, 設論, 辭, 序, 頌, 贊, 符命, 史論, 史述贊, 論, 連珠, 箴, 銘, 誄, 哀, 碑文, 墓誌, 行狀, 弔文, 祭文 등 38종의 문체가 망라되어 있고, 『唐文粹』에는 古賦, 詩, 頌贊, 表, 奏書疏, 策文, 論議, 古文, 碑銘, 記, 箴, 誠銘, 書序, 傳錄, 紀事 등이 수록되어 있다.

46) 李穡, 같은 책 卷9, 「贈金敬叔秘書詩序」: “哀集之富 稱快軒”

47) 문선규, 『한국한문학사』(정음사, 1961), 75~85 쪽

48) 崔滄, 『拙菴千百』 卷2, 「東人之文序」.

49) 같은 책 卷1, 「金文正公墓誌銘」: “辛亥 又刪商議 官隨例罷 自是閑居者 十年”

50) 成俔, 『慵齋叢話』 卷8.

들은 자신의 抄選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앞서 이루어진 選集을 깎아내린 면도 없지 않지만, 대체로 『동국문감』이 疎略하고⁵¹⁾ 雜駁하다⁵²⁾는 평을 하고 있다. 이것은 김태현이 精選보다는 哀集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김태현은 『동국문감』을 편찬하면서 단지 前人들의 시문을 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詩話·詩評을 부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국문감』이 시화·시평집을 곁했을 가능성은 앞서 서론의 인용문을 통하여 崔淑精이⁵³⁾ 『동국문감』을 『잡기』·『과한집』·『보한집』·『역옹패설』과 같은 類로 간주한 데서 엿본 바 있다. 『동국문감』이 詩文選集이지만, 순수한 시문선집인 崔澐의 『東人之文』, 趙云佐의 『三韓詩龜鑑』, 金祉의 『選粹集』 등과는 달리 『과한집』·『보한집』·『역옹패설』과 함께 언급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음을 말해준다.

- 1) 文貞公⁵⁴⁾ 金台鉉이 말하기를 “補闕 陳澹가 일찍이 나에게 이르길 ‘시는 마땅히 清新한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시 「題山寺」에서 읊기를 ‘빗발 걸친 트랙에 이끼가 다복하고, 인적 드문 삼작은 대낮에도 달혔네. 푸른 섬돌에 떨어진 꽃잎 한 치나 되어, 봄바람에 불려갔다 다시 불려오네.’라 하였는데, 그 말이 믿을 만하다”고 하였다.⁵⁵⁾
- 2) 金快軒이 陳澹를 평하여 이르기를 ‘詩에 깊이가 있고 情이 많다고 하였으니 믿을 만하다.’⁵⁶⁾

두 인용문에서 김태현의 實際批評을 볼 수가 있다. 1)에서 김태현은 먼저 진화의 作詩觀 (詩當以清爲主)을 인용하고, 진화가 실제 「春晩題山寺」라는 시에서 그것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말(작시관)이 믿을 만하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2)는 『靑丘風雅』의 편찬자 金宗直이 진화의 「春晩題山寺」 시에 대한 김태현의 詩評이 믿을 만하다고 인용한 것이다. 『梅湖遺稿』의 편찬자와 金宗直이 위의

51) 徐居正, 「東文選序」; 盧思慎 等, 「進東文選箋」; 崔淑精, 「東人詩話後序」.

52) 金宗直, 「靑丘風雅序」: “近世 金快軒崔猊山趙石礪 各有選集 石礪略 快軒雜 猊山之編 最爲得體”

53) 註 5)번 참조

54) 文正公의 잘못이다.

55) 陳澹, 『梅湖遺稿』, 「春晩題山寺」附: “金文貞台鉉曰 陳補闕澹嘗謂余 詩當以清爲主 如題山寺詩曰 雨餘庭院簇莓苔 人靜雙扉晝不開 碧砌落花深一寸 東風吹去又吹來 其言信然”

56) 金宗直, 『靑丘風雅』 卷6, 陳澹, 「春晩」附: “金快軒評澹謂 深於詩 多於情 信然”

두 시평을 어디에서 인용해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동국문감』의 시화·시평적 성격으로 미루어 거기에서 끌어오거나 참조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세상에 전하기를 “김부식이 정지상의 재능을 질투하여 정지상을 살해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고려사』를 상고해 보면 정지상이 묘청의 꾀에 넘어가 자신의 羽翼들이 모두 제거되었으니, 스스로 온전하기가 진실로 어려웠던 바, 김부식이 사사로이 용서해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또 本傳과 여러 책에 한 마디도 억울하게 살해되었다는 기록이 없는데, 세상에 이와 같이 전하는 것은 어찌서인가? 근래에 金台鉉이 지은 『東國文鑑』의 註를 상고해 보니 “김부식과 정지상은 文字間에 감정이 쌓여 있었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당시에 이미 이러한 말이 있었던 듯하다.⁵⁷⁾

향간에 金富軾이 鄭知常의 재능을 투기하여 죽였다고 전하는 말에 대하여 徐居正이 김태현의 『동국문감』 註로써 金·鄭이 살던 당시에 이미 그러한 소문이 있어서 전해 온 것이라고 引證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김태현이 『동국문감』에 김부식 혹은 정지상의 시문을 선발하고, 두 사람과 관련된 일화를 註로써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다. 김부식과 정지상의 文字 시샘은 두 사람이 일시에 이름을 나란히 하여 서로 잘못한다고 다툰 일을 말한다. 한 번은 정지상이 지은 詩句를 김부식이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았는데, 정지상이 묘청의 난에 연루되어 김부식에게 죽임을 당한 후 귀신이 되어 나타나서 김부식의 “柳色千絲綠 桃花萬點紅”이라는 시구에 대해 “천 울, 만 점인 것을 일일이 세어 보았느냐?”고 하면서 그의 뺨을 후려쳤다고 한다. 또 뒷날 김부식이 어느 사찰의 화장실에 갔을 때 정지상의 귀신이 나타나서 김부식의 음낭을 움켜잡고는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얼굴이 붉으냐?”고 묻자 “저편 언덕의 단풍이 비쳐서 붉다”고 대답하며, 더욱 힘주어 움켜잡았으므로 김부식이 화장실에서 죽었다고 한다.⁵⁸⁾ 이것은 好事者들이 두 사람 간의 알력을 정지상의 죽음과 연관지어 지어낸 이야기이

57) 徐居正, 『筆苑雜記』 卷1 : “世傳 金富軾妬才忌能 害鄭知常 今考麗史 知常墮妙清術中 羽翼悉翦 自全實難 非富軾所得私貸 且本傳及諸書 無一語及枉害 而世之所傳如是 何耶 近考金台鉉東國文鑑註 曰金鄭於文字間 積不平 然則當時已有是言矣”

58) 김부식과 정지상의 일화는 『白雲小說』, 『月汀漫錄』, 『小華詩評』 등에 전하고 있다

다. 『동국문감』에는 이 이야기가 모두 수록되지는 않았겠지만 김태현은 이를 요약하여 “金鄭於文字間 積不平”이라 註를 붙임으로써 작가와 시를 이해하는 데 요긴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김태현은 『동국문감』에 선발된 시문에 문인들의 逸話 詩話 詩文評 詩文論 등을 註로 처리하여 함께 수록하고, 나아가 난해하거나 고사가 있는 어구에 주석을 부가하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가 이러한 주석을 붙이는 데는 역대의 典故를 어제의 일같이 말하고, 나라에 큰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에게 물어서 처결하였던 바와 같이⁵⁹⁾ 그의 해박한 지식이 밑천이 되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V. 『白雲小說』의 撰者에 대한 異見

洪萬宗(1643~1725)이 『詩話叢林』을 편찬하면서 『백운소설』을 그 첫머리에 넣고 “李奎報 撰”이라 달아 놓은 것이 『백운소설』의 찬자에 대한 최초의 문헌 기록이다. 이에 따라 초기 한문학 연구에서는 『백운소설』을 통하여 이규보의 비평의식을 고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백운소설』에 대한 문헌학적 검토와 원전비평이 이루어짐으로써⁶⁰⁾, 이규보가 아니라 조선 후기의 어떤 문인이 편찬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학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 『백운소설』이 이규보의 自撰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⁶¹⁾

- 1) 『백운소설』에 이규보의 생존시기보다 후대의 문헌인 『堯山堂外記』(明 蔣一葵)와 『唐音遺響』(元 楊士弘)이 등장하는 점
- 2) 「自解詩」 7언 6구를 律詩로 착각하여 “落句缺”이라 잘못 주석을 붙인 점
- 3) 이규보가 평소 존대했던 吳世才와 歐陽白虎의 호칭에 비하적인 표현을 쓴 점.
- 4) 『백운소설』에 실린 「西伯寺住老敦裕師」, 「南行月日記」, 「論詩中微旨略言」의 문맥이 불완전하고 서술 체제가 모순을 보이는 점.

59) 『고려사』, 앞의 곳 : “言歷代典故 如昨日事 每國有大疑 必就咨決

60) 각주 3)번 참조

61) 정규복, 앞의 논문

5) 「違心戲作詩」에 삽입된 「四快詩」가 명나라 초기의 작품인 점.

정규복 교수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백운소설』이 이규보가 아니라 후대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그 후대인은 『시화총림』을 엮고 거기에 『백운소설』을 삽입시킨 홍만중 자신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정교수가 주장하는 홍만중설의 논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첫째, 『시화총림』의 「범례」에 따르면 전문 시화집은 수록하지 않고 記事書의 경우 시화만을 뽑아서 엮었는데, 「범례」에 『백운소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그것이 『시화총림』 이전에 아직 편찬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따라서 홍만중이 시문학의 거장인 이규보의 시화를 첫 장에 넣어서 『시화총림』을 권위서로 만들기 위해 『동국이상국집』에서 시화를 간추리고 이규보의 호를 붙여 『백운소설』을 만들었다. 둘째, 『백운소설』의 3항에 걸쳐 홍만중이 31세 때 편찬한 『小華詩評』과 유사하거나 똑같은 구절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백운소설』이 이규보의 自撰일 수 없다는 데는 동의하나, 홍만중이 편찬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시화총림』은 홍만중이 70세 때 편찬한 것인데, 老詩人이자 조선시대 최고 비평가의 솜씨로 보기에 『백운소설』이 부분적으로 너무 조잡하고 서툴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백운소설』의 편찬자를 홍만중으로 볼 수 없는 몇 가지 異見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우리 동방의 詩道는 殷나라 太師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시를 짓는 사람이 대대로 있어 왔고 때때로 일가를 이룬 사람도 있었지만, 다만 시를 평하는 사람은 드물었고, 평으로서 볼 만한 것도 얼마 없었다. 고려 때의 『백운소설』, 『역옹패설』이나 우리 왕조 때의 『지봉유설』, 『어우야담』 같은 책은 수십 종에 불과 할 따름이다. 나는 그런 책에 대해 들으면 구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손에 넣으면 읽지 않은 적이 없었다. 다만 그 속에 朝野의 일이나 향간의 속된 이야기들도 아울러 실려 있었기 때문에 책의 부피가 너무 커서 기억하고 읽기에 곤란했다. 이에 여러 사람들이 지은 책을 모아 오로지 시화만을 뽑아서 한 책으로 엮어 『시화총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⁶²⁾

- 2) 『과한집』, 『보한집』, 『동인시화』 같은 책들은 오로지 詩話만 실려 있어 마땅히 全書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뽑아 신지 않는다. 『역옹패설』, 『어우야담』 등 10여 가지의 책들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지만 사이사이에 시화가 있으므로 이제 다만 시화만 뽑아 따로 한 편을 만들어서 읽고 즐기도록 했다.⁶²⁾

위 인용문은 홍만중이 직접 쓴 『시화총립』의 序文과 凡例의 第 1條이다 1)에 의하면, 홍만중이 『시화총립』을 편찬할 당시에는 이미 『백운소설』이 편찬되어 있었고, 더욱이 그는 이제현의 『역옹패설』과 함께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저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 『백운소설』을 구하여 읽었다고 볼 수가 있다 2)에 의하면 『백운소설』은 전문 시화집이 아니라 記事書로서, 시화만 뽑혀 『시화총립』에 수록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1)과 2)를 종합하면 홍만중 이전에 누군가에 의해 편찬된 『백운소설』의 원본이 존재했고, 그것은 조야의 사적이나 향간의 속된 이야기까지 수록된 권질이 꽤 큰 책이었으며, 홍만중은 원본에서 시화만 뽑아 『시화총립』에 수록한 것이 된다. 그러나 『시화총립』 이외에 『백운소설』의 존재나 그 찬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⁶⁴⁾ 그 정체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한편 홍만중은 『시화총립』의 편찬을 끝내고, 편집 후기에 해당하는 「證正」을 집필하여 附錄으로 붙였다. 편찬 과정에서 느낀 점, 시화집 간의 異同과 오류를 바로잡은 것, 비평가들이 지녀야 할 태도와 자세 등을 서술하였다. 시를 기록하는 사람은 시의 主客을 잘 살펴야 하고, 시를 선집하는 사람은 박식하고 아량이 커야 취사에 정확을 기할 수 있으며, 책을 편집하는 사람은 考據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⁶⁵⁾ 등등의 의견 제시는 주목되는 비평관이라 할 수가 있다.

62) 洪萬宗, 「詩話叢林序」: “吾東方詩道 自殷太師始 其後作者 代各有人 往往自成一派 而獨評詩者甚罕 評而可觀者 亦無幾 如麗朝白雲小說樸翁稗說 我朝芝峰類說於于野談等書 不過數十種而已 余聞無不求 得無不覽 第於其間並載朝野事蹟 閭巷俚語 篇帙浩汗 難於記覽 於是 合諸家所著 而專取詩話 輯成一編 名之曰 詩話叢林”

63) 같은 이, 「詩話叢林 凡例」: “如破閑集補閑集東人詩話 專是詩話 當以全書看閱 故茲不抄錄 如樸翁稗說於于野談等十餘書 乃記事之書 而間有詩話 故今只拈出詩話 別作一編 以備吟玩”

64) 任廉의 『陽葩談苑』에 『白雲小說』과 “李奎報 撰”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이는 『詩話叢林』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65) 홍만중, 같은 책, 「詩話叢林 證正」: “若非博洽之士 安得辨主客而定是非耶 後之秉筆記詩者 不可不審也……自古選詩者 非博識宏量 固難乎取舍精覈……凡纂書者 必攷據精實 勿之有疎 然後可以傳信”

이러한 홍만중의 비평가적 태도를 『백운소설』에 드러나는 몇 가지 문제점에 건주어 볼 때, 과연 그가 『백운소설』을 편찬했겠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요산당외기』가 明代에 편찬된 책인 줄 모르고 인용했겠는가?, 『동국이상국집』에서 「西伯寺住老教裕師」와 「南行月日記」를 발췌하면서 본문과 註를 섞어서 문맥이 연결되지 않는 문장으로 만들었겠는가?, 詩論의 체재 상 모순이 되는데도 「論詩中微旨略言」을 갈라 놓았겠는가? 이런 점은 홍만중이 『백운소설』의 찬자가 아닐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또한 『백운소설』의 일부 시화가 『소화시평』과 비슷한 내용이고, 어구가 부분적으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해서 같은 작자가 될 수는 없다. 諸家の 시화는 각각 들은 것을 기록했으므로 기록에 차이가 있다. 홍만중은 만약 전후 사람이 기술한 내용이 어떤 것은 상세하고 어떤 것은 간단하다면 시대의 전후에 구애되지 않고 상세한 것을 수록하였다.⁶⁶⁾ 김부식과 정지상 간의 알력과 정지상의 귀신이 김부식을 죽게 했다는 이야기는 『소화시평』과 『백운소설』에 비슷한 내용으로 실려 있다. 『소화시평』은 홍만중의 나이 31세 때의 저술이고, 『시화총림』은 70세 때 편찬한 것인데, 『소화시평』의 것에 비해 『시화총림』 소재 『백운소설』의 것이 훨씬 자세하다. 홍만중의 저술이 확실한 『소화시평』의 것보다 분량이 두배가 넘을 정도로 상세한 이야기를 수록한 점은 그 편찬자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양자 간의 어구가 일부 같거나 비슷한 것을 두고 『소화시평』을 대본으로 하여 부연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시화집을 편찬할 때 전대의 시화집을 참조하고 인용하는 일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백운소설』에 실린 「四快詩」의 경우 『시화총림』 소재 『稗官雜記』에도 「四喜詩」라는 이름으로 字句만 약간 달리하여 실려 있다. 홍만중이 이규보의 것으로 暗습시키기 위해 『패관잡기』의 시를 자구만 약간 고쳐서 수록한 것은 아닐 것이다. 홍만중은 『시화총림』을 편찬하면서 시가 거듭 수록된 것은 모두 刪去하였다. 혹 시는 같지만 비평이 다르거나 다른 시와 한 데 모아서 비평한 것은 비록 거듭 나오더라도 함께 실어 참고하도록 하였다.⁶⁷⁾ 따라서 「四快詩」도 『백운소설』과 『패관잡

66) 같은 이, 「詩話叢林 凡例」: “若前後人所記 或詳或略 則不拘前後 錄其詳者”

67) 같은 곳: “凡詩重錄者 輒皆刪去 而或詩同而評異者 及與他詩輯集而題品者 雖屢次疊見 并存之 以資考覽”

기』에서 각기 기능이 달랐기 때문에 거듭 인용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만중이 『시화총림』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백운소설』을 엮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詩話叢林序」, 「凡例」, 「證正」 등에 나타나는 당시의 詩話史的 상황과 홍만중의 비평가적 태도로 볼 때, 홍만중 이전에 어떤 문인에 의해 『백운소설』의 원본이 편찬되었고, 홍만중은 거기에서 시화에 해당하는 것만 발췌하여 『시화총림』에 轉載한 것으로 보는 편이 보다 타당할 듯하다.

VI. 結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시화·시평집이 편찬되기는 고려시대에 와서 었다. 현전하는 고려시대 시화·시평집은 이인로의 『파한집』, 최자의 『보한집』, 이제현의 『역용패설』 등이다. 이외에도 시화·시평류의 저술이 편찬되었으나, 현전하지 않는 관계로 연구에서 도외시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일실된 고려시대의 시화·시평집에 대한 문헌학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한다.

1. 고려시대에 편찬된 시화·시평집은 鄭敍의 『雜書』, 李仁老의 『破閑集』, 崔滋의 『補閑集』(『續破閑集』), 金台鉉의 『東國文鑑』, 李齊賢의 『櫟翁稗說』 등 5 종이다
2. 정서의 『잡서』는 고려시대에 편찬된 최초의 시화·시평집으로, 고려비평사에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문학사 및 개별연구에서 이인로의 『파한집』으로 효시를 삼던 것은 바로잡혀야 한다.
3. 최자는 이인로의 『파한집』을 續補하는 취지로 『속파한집』을 편찬하였는데 이를 繕寫하는 과정에서 정서의 『잡서』 일부를 수용하여 『보한집』으로 改稿하였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속파한집』과 『보한집』은 차이가 난다.
4. 김태현이 편찬한 『동국문감』은 우리나라 최초의 시문선집으로 알려져 왔지만, 선발한 시문에 시화·시평을 더하여 註로 처리함으로써 批評書의 역할을 겸하였으며, 조선 초기의 문인들에게도 시화·시평서로 인정을 받았다.
5. 『백운소설』은 조선 후기의 어떤 문인이 이규보의 저술(『동국이상국집』)을 토대로 편찬한 原本이 있었으며, 洪萬宗은 그 원본에서 시화만을 발췌하여 『시화총

림』에 수록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實物이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흩어져 있는 단편 기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논리적 비약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밝혀 둔다.

참고문헌

1. 原典類

- 金宗直, 『靑丘風雅』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0.
- 金 杰, 『海東文獻總錄』 서울: 學文閣, 1969.
- 徐居正 外, 『東文選』 서울: 協成文化社, 1985.
- 徐居正, 『東人詩話』(趙鍾業, 『韓國詩話叢編』 1 서울: 東西文化社, 1989).
- 徐居正, 『筆苑雜記』(같은 곳).
- 成 倪, 『慵齋叢話』(같은 곳).
- 梁誠之, 『訥齋集』(민족문화추진회, 『韓國文集叢刊』 9, 1990).
- 魚叔權, 『稗官雜記』(趙鍾業, 같은 곳).
- 尹根壽, 『月汀漫錄』(같은 곳).
- 李晬光, 『芝峰類說』(같은 책 2).
- 李 穡, 『牧隱集』(민족문화추진회, 같은 책 4·5, 1990).
- 李仁老, 『破閑集』(趙鍾業, 같은 곳).
- 林 椿, 『西河集』(민족문화추진회, 같은 책 1, 1990).
- 任 廉, 『陽葩談苑』(趙鍾業, 같은 책 10).
- 鄭麟趾 外, 『高麗史』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2.
- 陳 湑, 『梅湖遺稿』(민족문화추진회, 같은 책 2, 1990).
- 崔 滋, 『補閑集』(趙鍾業, 같은 책 1).
- 崔 瀆, 『拙藁千百』(민족문화추진회, 같은 책 3).
- 洪萬宗, 『小華詩評』(趙鍾業, 같은 책 3).
- 洪萬宗, 『詩話叢林』(같은 책 4).

2. 論著類

- 金乾坤, 「高麗時代의 詩文選集」 『정신문화연구』 제20 권 3 호 통권 68 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金塘澤, 「崔滋의 《補閑集》 著述動機」 『震檀學報』 65호, 진단학회, 1988.
- 金鎭英, 「李奎報文學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 文璇奎, 『韓國漢文學史』 서울正音社, 1961.
- 成範重, 「東國四詠의 淵源과 傳統」 『韓國漢詩研究』4, 韓國漢詩學會, 1996.
- 宋敏鎬교수 고희기념논총 간행위원회, 『韓國文學思想史』 서울: 啓明文化社, 1991.
- 沈浩澤, 「破閑集의 歷史의 性格」 『漢文教育研究』 第1號, 한국한문교육연구회, 1986.
- 柳在泳, 『白雲小說研究』 익산: 圓光大出版局, 1979.
-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서울: 普成文化社, 1978.
- 全鎔大 外, 『韓國古典詩學史』 서울: 弘盛社, 1979.
- 鄭景柱, 「鄭敎의 生涯와 忠臣戀主之詞로서의 〈鄭瓜亭〉」 『釜山漢文學研究』 第8輯, 부산한문학회 1994.
- 丁奎福, 「白雲小說의 撰者에 대하여」 『韓國古典文學의 原典批評』, 새문사, 1990.
- 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試論』 서울: 지식산업사, 1978.
- 趙東一, 『한국문학통사』 2 서울: 지식산업사 1983.

● 투고일: 2003. 12. 17

● 심사완료일: 2004. 2. 12

● 주제어(keyword) : Japseo(雜書), Sokpahanjip(續破閑集),

Donggukmungam(東國文鑑), Baekunsoseol(白雲小說)